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2 **여름** vol.57





시민, 예술애(愛) 물들go

2022
광주프린지페스티벌
GWANGJU FRINGE FESTIVAL

우리동네 프린지 (10회)

06. 04.(토) ~ 09. 03.(토)

민주광장 프린지 (5회)

09. 24.(토) | 10. 01.(토) ~ 10. 03.(월) | 10. 22.(토)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문화재단

<http://fringefestival.kr/> | 062-670-7983





정희승 「아침 꽃을 줍다」, 130,3×162cm, 캔버스에 유채, 2021.
광주(光州) 출생, 현재 광주에서 살며 작가로 활동. 개인전 5회, 단체전 100여 회 참여.
작품설명
강진 백련사 동백은 토종 꽃으로 단아한 모습이 일품이다. 동백은 피어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추하지 않다. 어느 봄날 아침, 동백 숲에서 밤새 떨어진 붉은 꽃 한 송이 주워 기쁘게 감상한다. 우리네 사월, 오월, 유월에 스러져간 순결한 넋들을 생각하며.

2		‘창’을 열며	
		옛 도청 앞 시계탑의 시계, ‘13시’에 멈추어야	노성태
3	특집 기획	민선 8기 문화도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와 조건	김병완
		독보적인 문화적 자산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으로	조덕진
		예술인이 살만한 문화도시, 유토피아인가?	이당금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명력은 어디에	최성혁
12	문화 + 人	햇피플 인터뷰	
		광주의 문화 사랑방에서부터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까지	김정희·이강현
17		문화인 인터뷰	
		시대와 현장을 기록하는 배우 추말숙	김혜라·추말숙
22		현장 이야기	
		광주관광재단&협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이정상
24		청년 문화인	
		피스모모,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문아영
27		기획연재_ 우리 신화의 밑바탕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2	김상윤
30	문화 공감	진단	
		코로나가 가져온 新공동체	김태훈
32		프리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개관과 개관전시 <디지털 공명>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김호준
36		문화톡	
		역사와 문화가 담긴 숲을 이야기하는 사람	정속희
		지금은 리뷰시대	양수영
40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큰 소리로 떠들기	김옥열
42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옛 도청 앞 시계탑의 시계, ‘13시’에 멈추어야

노성태 재단 연구소장



5·18 민주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당시 시민들의 항쟁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묵묵히 지켜본 역사의 산증인이 있다. 도청 앞을 지켰던 1971년 건립된 시계탑도 그중 하나다.

광주 항쟁의 목격자, 산증인이었던 시계탑은 5·18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두환 정권에게 미운 털이 박힌다. 1980년대 중반 신군부의 강제 이전 지시에 따라 농성광장으로 옮겨진 이유다. 일종의 흔적 지우기인 셈이다. 말을 못 하는 시계탑이지만, 신군부의 엄청난 폭력과 야만을 지켜보았기 때문인데, 신군부는 그것마저도 두려웠던 모양이다. 농성 광장에 내팽개친 시계탑의 시계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대신 광고판이 들어서게 된다. 원형마저 파괴한 셈이다.

시계탑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온 것은 2015년 1월 27일, 5·18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서였다. 그리고 이 시계탑에 첨단 기술이 더 첨가된다. 오후 5시 18분이면 울려 퍼지게 만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것이다. 지금 노래하

는 시계탑, 5·18전령사인 셈이다. 그러나 시계탑은 5·18을 노래하는 시계탑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시 폭력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았기 때문에 5·18의 더 큰 상징을 담아내야 한다.

민족의 원흉인 이토를 격살한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고, 기념관 입구에 걸린 시계는 이토의 격살 시간인 9시 30분에 멈춰져 있다. 9시 30분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찾는 탐방객을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즉 당시의 의거 현장으로 안내한다. 안중근 기념관에 멈춰 선 시계는 안중근 의거 순간을 품고 있는 역사 지킴이인 셈이다.

옛 도청 앞 시계탑도 13시에 멈춰 서야 한다. 13시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 시간이다. 그래야 먼 훗날 옛 도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1980년 5월 금남로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 즉 금남로의 진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

특집기획

민선 8기 문화도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지난 봄호(통권 56호) 특집 기획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에 이어 여름호(통권 57호)는 '민선 8기 문화도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 의견과 제언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번 특집기획이 민선 8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생산적인 담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와 조건
김병완_ 광주대학교 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 독보적인 문화적 자산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으로
조덕진_ 무등일보 논설실장
- 예술인이 살만한 문화도시, 유토피아인가?
이당금_ 푸른연극마을 대표
-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명력은 어디에
최성혁_ NFT 아트 에이전시 지니컬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와 조건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까?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온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문화도시로서 그 정체성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을까?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확립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앞에 ‘지속가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더 어려운 질문이 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아직도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막연한 걱정에서 생긴 말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개념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명확하게 생태계가 ‘지탱 가능한(sustainable) 범위 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말로는 단순히 시간적 지속성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되면서 이중적 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은 ‘지속가능한’이라는 개념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이란 근본적으로 건전한 생태적 기반 위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로 확장되고, 그 안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기반 위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지속가능성 위기의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향후 10년간 지구촌을 위협할 지속가능성 위기 10대 요소를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다섯가지가 기후·환경·생태계 관련 요소들이다. 특히 기후 위기,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상실이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여 유엔은 2015년 창립 70주년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이행을 권장하였는데, 이는 환경, 사회, 경제, 평화, 협력을 의미하는 5P의 가치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17개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올해 1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제2조에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라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도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필요한데,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요구한다. 문화중심도시 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원칙에 상충되지는 않는지 계획 수립 및 수정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화도시가 자칫 인위적인 문화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축과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요소와 환경생태적 기반을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기후 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현이 절박한 시대에 도시의 자연자산과 녹지공간 등 환경생태적 요소는 문화도시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그 누구도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배제 또는 차별받지 않도록 포용적 문화도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서 문화도시의 교통 인프라로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생태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양성의 존중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열린 사회의 민주인권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야말로 문화도시의 또 다른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6·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방향 및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생산적인 문화담론이 형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중심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조적 생태문화 예술 활동 지원체계,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과 연계한 기업의 문화활동 기여 제도, 화석에너지 과소비형 문화 소비도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립형 생산적 문화도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거리디자인, 마을디자인 등으로 이루어진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마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정 책임자와 시민이 아닐까 한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독보적인 문화적 자산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도시 경쟁력으로

광주는 어느 때보다 '광주'만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확장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맞고 있다. 대신을 거치며 광주는 '대한민국 AI 메카'로 비전과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광주의 아픈 손가락 '경제'분야의 미래를 논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도시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를 AI 메카로 키워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화예술도시 광주, 광주의 문화예술 DNA와 연계할 때 폭발적 경쟁력, 광주만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광주시는 물론 문화계 등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물결에 합류해 '광주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21세기 광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천착해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을 도시정책의 핵심에 두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는 광주만이 할 수 있는, 단연 독보적인 여건이고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도시들이 '경제', '먹거리'에 골몰하고 있고 도시의 차별성, 차별화된 경쟁력은 쉽지 않다. 광주만이 탄탄한 경제를 한 축으로 문화에

술을 도시의 아이콘으로, 경쟁력으로 키워갈 때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도 겨뤄볼 수 있는 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광주의 문화예술적 경쟁력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단연코 광주의 문화예술적 자산이다. 다음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상징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AI 메카와 발맞춘 문화산업이다.

이 셋이 한 바퀴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광주는 그야말로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만날 수 없는, '광주'만의 색깔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내외적인 여러 난관이 있지만 여건은 무르익었고 이제 이를 추동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실현해 내는 일은 지역사회의 역량이고 가능성이다.

광주가 지닌 문화예술적 자산, 문화예술적 DNA는 독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의 예술인과 청년 기획자들의 고민에도 광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술도시, 문화도시다. 광주·전남의 옛 영광과 이를 물려받은 문화적 DNA가 빛어낸 후광효과를 현실로 구현해 내야 할 시점이다.

변방의 도시 광주(전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화풍, 남종화라는 화풍을 간직했던 유일무이한

광주의 문화예술적 경쟁력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단연코 광주의 문화예술적 자산이다. 다음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상징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AI 메카와 발맞춘 문화산업이다.

도시다. 여기에 동편제·서편제로 상징되는 한국음악의 발원지이고 일제하 김영랑부터 이청준·조정래·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문학의 산실이다. 또 20세기 들어서는 아시아 최초로 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아시아 변방 도시 광주는 일약 현대미술의 선도도시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퇴보한다고 하지만, 국내에도 여타의 비엔날레가 넘쳐나지만 광주 비엔날레의 후광은 유효하고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

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상징되는 광주 예술을 섬세하고 과학적인 정책적 지원과 육성으로 키워나가는 일은 예술도시 광주의 첫 번째 책무다. 순수예술의 경쟁력 없이 문화산업이나 도시 경쟁력은 요원하다. 도시브랜드를 자랑하는 세계적 도시들이 이를 증명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립이지만 광주에 터를 잡고 있는 기관의 경쟁력은 광주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이끌어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문화전당이 키워낸 세계적 브랜드 작품, 아시아문화 산실로서의 다양한 역할들은 그 자체로 광주라는 도시의 브랜딩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AI 메카는 광주에게 주어진 강력하고 현실적인 기회다. AI 등 과학기술이 예술과 결합한 지

는 이미 오래된 일인데다 현시점에서 AI는 문화산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 GMAP은 AI의 쇼룸, 전진기지로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가능성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광주를 여타의 도시와 확연히 구분 짓는 ‘경쟁력’은 단연 문화예술이다. 막연했던 예술도시, 문화도시 광주를 보다 공고히 해서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광주만의 색깔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상징되는 민관의 협력과 협업은 필수다.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의 고민과 대안을 종합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광주가 이름에 걸맞는, 광주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예술인이 살만한 문화도시, 유토피아인가?

자존감은 예술가에게 숨과도 같은 것이다. 온갖 규제로 인해 2년여의 세월 동안 예술가들의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위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낮은 곳에서도 불쑥 불쑥 솟구치는 뿌리를 내리고, 아프고 어려운 곳에서도 한 방울 울음을 씹어 삼키며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다.

1350년 무렵,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페스트)은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보이지 않는 페스트균으로 인해 수많은 폐죽음을 경험하고 경험당한 인간은 각성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할 때 가장 앞장선 계층이 중세 시대 박해 박고 소외받았던 예술가들이었다. 죽음 앞에서 예술가들의 창조성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14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르네상스에 앞장섰다. 르네상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일컬을 때 쓰이며 프랑스로 재생 또는 부활이라는 뜻으로 되살아 나는 예술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 예술가들은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최근에 SNS에서 모 기관 지원 사업 인터뷰 심사 중에 심사위원의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

“참 말 안 듣는 예술가 시네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예술가의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거나,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행정가적 사고 아닌가라며 의견이 분분했다. 예술가의 창의성은 다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예술가를 존중하는 일이 시작된다면 우리 도시는 예술인들이 살만한 도시가 될 것이다. 예술가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광주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예술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예술가를 존중하는 행정, 예술가를 우선하는 행정, 예술가를 보살피는 행정 시스템이 있다면 시골 변방일지도 예술은 그곳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예술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주민, 예술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시민, 예술가를 성장하게 하는 도시야말로 진정 예술인이 살만한 곳이다.

방역이 해제되고 규제가 풀리고 있는 시점에 일주일간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렸다. 너무 오랫동안 감금당한 뒤 풀려난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연극을 보러 온 학생들의 줄 서기, 버스킹, 플리마켓, 야외 퍼포먼스를 비롯해서 각 극장마다 다양한 공연들이 소풍 나

온 아이들처럼 왁자지껄하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소통되는 곳, 예술가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는 곳, 대학로에 활기차다. 덕후(뮤지컬팬)와 연덕이(연극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객석을 지키며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술가들을 보호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배우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울 때가 왕왕 있다. 연극배우인 나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자세, 배우인 당신과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다.

코로나 이전, 그리스 연극여행을 하면서 하마터면 그리스에 살 뻔했다. 뻗속 깊이 문화예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술(가)를 대하는 태도는 존경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정장을 차려입거나 우아한 드레스를 갖춰 입은 청장년 관객, 공연 1시간 전에 티켓팅을 하고 주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스낵을 즐기며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 1년 중 여름엔 야외공연 페스티벌, 겨울엔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한다는 중년부부, 공연이 끝나면 카타르시스를 정화하기 위해 주변 카페에서 술한 잔을 기울이며 예술의 감동을 음미하다 데모크라시 광주, 5·18광주민중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예술의 도시 광주가 궁극하단다. 아, 광주! 외부에서 바라보는 광주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의 허브를 표방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용을 자랑하는 광주 아닌가! 하지만 예향의 도시 광주 이전보다 품격이 높아지진 않는다. 무늬만 그럴싸할 뿐,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가가 살만한 도시인가 둘러보면 씹쓸할 뿐이다. 문화도시, 예술마을을 내세우는 여느 지자체보다 나올 게 없다. 되려, 소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성에 걸맞은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광주는 어떠한가?

예술인들이 살만한 도시인가? 예술들에게 따스한

예술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주민, 예술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시민, 예술가를 성장하게 하는 도시야 말로 진정한 예술인이 살만한 곳이다.

결을 내줄 수 있는가?

여전히 고루하고 진부하고 편협되고 있지는 않나 성찰해야 한다.

비록, 뽑나는 예술대학은 없어도 뽑나는 전문적인 문화예술 행정가들이 많은 도시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예술 행정가들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고정된 틀을 깬다. 불편하고 어렵고 성과를 위한 숫자 폐이퍼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보살피고,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골목골목에 뿌리박혀 살고 있는 예술가들을 양지로 나와 큰 나무가 되어 광주시민 모두의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명력은 어디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문화예술계는 다른 학문, 산업, 기술 영역 간 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신문화 콘텐츠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일상에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여겨져 가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부각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강조나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융복합 추세를 더 가속시키며 다양한 신산업을 창조해 내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환경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문화기술대학원(Culture Technology)이나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설립 등이 그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과 산업, 기술의 융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각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예술과 산업 간 융합을 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간 융합 필요성

및 다양한 시도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합 활동의 성과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아마 다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융복합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제도나 정책은 항상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 또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결국 산업의 발전과 부흥은 그 산업에 몸담은 인재들과 함께라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활성화'를 외치며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관련 산업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인재들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교육기관인 대학에서조차 이러한 교과과정을 찾기가 어렵거나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외의 사례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나 산업이 등장하면 그와 발맞춰 대학 및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강좌 및 교육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며 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 이로써 문화 콘텐츠 생태계의 요소들(정보, 인재,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과 관련하여 시도되고 있는 활동 및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보통 정부 해당 부처나 일부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결합이 다소 배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융복합 활동들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문화콘텐츠 기업들도 사실 많은 때에 제도적인 장벽이 너무 높고 기준이 까다로워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적어도 우리의 문화 콘텐츠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사업들을 고민할 때 성과 위주에 치중해 초기에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단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나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또는 기업과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로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간 지식, 정보, 인적 교류의 폭넓은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여겨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각종 도구나 환경이 주는 영향에 따라 학습된 결과물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 문화의 보편적인 정의 속에 한두 단어 ‘도구’ 그리고 ‘환경’에 절대적인 동의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돌출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진화’라고 생각된다. 물론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발전’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내가 바라본 우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끝은 결국은 또 다른 문화콘텐츠의 탄생, 결국 진화의 과정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정지된 문화는 언젠가 세대가 바뀌고 함께 사라지게 된

걸으려는 ‘활성화’를 외치며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관련 산업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인재들이 없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결국 산업의 발전과 부흥은 그 산업에 몸담은 인재들과 함께라는 부분이다.

다. 우리는 많은 때에 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온고지신’ 또는 ‘법고창신’이란 사자 성어가 떠오른다. 하나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란 의미이고 둘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두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경험’과 ‘진화’이다. 이 두 단어가 적절한 적용이 될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화 콘텐츠도 이러한 경험과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진화는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교류는 결국 우리 문화의 다양한 색채로 더해져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어쩔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 ♪



최성혁 NFT 아트 에이전시 지니컬쳐



광주의 문화 사랑방에서부터 아시아의 문화 중심으로까지

대담 김정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편집위원·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 시민강좌 프로그램들을 맘껏 즐기셔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말미암아 광주를 넘어서 수도권, 아시아 전체로 아주 훌륭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먼저 애정으로, 많은 방문으로 채워주세요.

김정희(이하 김)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한지 100일 정도 지났네요. 전당 개관 6년여 만에 초대 전당장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소감은요?

이강현(이하 이) 6년 3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취임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기대가 매우 커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보니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나서 인원이 구성된 터라, 6년 전 설립 시작 때부터 2월 초 전당에 합류하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에 약 40여 명이었던 공무원 조직에서 125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혼재된 조직들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조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제대로 된 전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하루하루가 무척 바빴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현재도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김 기대가 큼니다. 답변처럼 전당 개관 이후 전당장 공모가 다섯 번이나 무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임이 되셨는데요. 전당장께서도 공모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이유라고 할까요?

이 우선, 초대전당장 공모 때부터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적절한 전당장 발령을 못 내다보니 6년 3개월 정도를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걸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현대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공연, 전시와 같은 특정 목적으

로 국한되어있다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 안에서 선발을 하여 애로사항이 없었을 텐데, 전당은 굉장히 복합된 공간입니다. 공연전시도 있고요. 연구조사 기능도 있고, 도서관에 이어서 박물관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아시아문화조성특별법 통과로 인해 문화교육과 신설 등 4개과에서 7개과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분리가 되었고, 문화교육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분야의 해당전문가들을 총괄해서 이 전체 전당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이 되게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들에 대한 이해도나 제작경험, 그리고 유통경험 같은 것들이 전당장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역량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해당 분야에서 콘텐츠 전문가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일을 오래 했고,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와 국내외에 유통하는 업무, 또 전시·이벤트·공연 계열사 업무를 해왔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저희 재단은 줄곧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참여한 부분을 다루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접근했었어요. 문화전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 답아야 할 콘텐츠, 기능과 역할 등 각 계의 전문가들과 담론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문화전당의 폐쇄성, 불통을 지적하면서 지역과의 소통 및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이 전당은 기본적으로 전당 내에서 연구조사, 문화교육, 공연전시를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현업직원들입니다. 미화, 안내, 혹은 도슨트 직원 분들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재단 직원 분들이 직접 시민 분들을 현장에서 만날 일은 많지 않은데, 이제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전당으로 통합되면서 외부의 현업직원들도 모두 공무원으로, 전당의 직원들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업을 하는 직원이나, 내근을 하는 직원이나의 차이, 직원들이 시민 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맞죠. 또 공무원사회가 가질 수 있는 벽이 높다던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이 사라지도록 해당 부서에서 윈스톱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생략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전시를 하시는 문화예술인 분들이 오실 때에도 전당의 시설 특성상 공연설치에 대한 장비를 이동하는 시간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공연자들 또 미술·

예술가들 편익의 입장에 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김 전당의 시설은 매우 좋으나, 대중성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 속에서 역할을 하려면 지역민들 또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건물의 위용이나 소외성이 느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향후 콘텐츠나 창작 과정에서 전당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시는 부분은 뭔가요?

이 전당은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험, 창작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천 석의 예술극장1도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처럼 고정형 좌석이 아닌 가변형 좌석입니다. 객석을 360도로 돌릴 수도 있고요, 한 쪽 면으로 세워둘 수도 있고, 객석을 아예 없애 바닥에서 마당극처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형무지컬이나 공연보다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들로 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앞선 개념의 전시·공연 공간 인데요. 그런 기관의 성격상, 대중적으로 익숙한 콘텐츠 보다는 조금 창의적이거나 실험적인 것들이 많이 실현되고 선보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위로 높이 솟아서 어디서나 잘 보이는 비교적 익숙하고 친숙한 구조가 아니고, 지하의 입구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오는 분들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공간도 복잡한데다가 실현되고 있는 콘텐츠의 내용들조차도 창의적이고 실험적이어서 어렵다, 낯설다 이런 평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점점 전당은 계속 바뀌고 좋은 편익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자주 안 와보시게 되거죠.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 전당의 직원들도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내용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것 못지않게 대중적이고, 익숙하고 편한 콘텐츠들도 많이

서비스하도록 2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사실 전당이 ‘광주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잘 안돼서 광주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전당에 바라는 것들과 전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저희 담론지에도 교수님,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각계의 의견들을 많이 실었는데요.

이 광주의 지역사회계에서는 광주의 위치와 역사공간에 대해 주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서울 중앙 등에서는 왜 광주에 있으면서 국립기관이며,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은 광주의 지자체 문화예술기관과는 차원을 달리해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해외의 미술가나 예술가들에게 이런 공간을 선보이는 콘텐츠들로 집중해야 한다는 이러한 상반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후자인 국립기관 성격의 글로벌한 교류에 역점을 둔 기관이었다면, 본연의 설립목적의 취지는 계속 유지하되, 그 가운데 광주 동구의 구민, 광주의 시민, 전남의 문화예술애호가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연·전시, 콘텐츠, 교육프로그램들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미션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전당의 극장에서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했던 좋은 퀄리티의 공연들을 영상으로 선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당 내의 복합전시관이 1관부터 6관까지 있는데, 복합전시 1,2관에 연간 상설전시를 진행해서 도서관의 무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상설전시도 보고, 자연스럽게 극장에서 하는 무료 공연도 보고, 수요일마다 하는 인문강좌도 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문화센터와 mou를 맺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당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한 첫 시발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수요일, 토요일에 라이브러리파



크 개관 시간을 연장해 직장인들도 퇴근 이후에 얼마든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그동안 불편하고 낯설었던 공간과 내용, 콘텐츠에 대한 벽들을 허물고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겠는데요, 문화전당이 있는 도시와 문화전당을 갖지 못한 도시, 이 사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우선, 광주에 자리 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시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시설이 난해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얼마 전, 영국 켄트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광주 분 교수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국의 문화예술가 분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전당을 둘러보게 했는데, 예술가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에 국립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우뚝 솟아서 건물이 하나의 관광기념의 공간, 랜드마크가 될 수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계 어딜 가도 많고 보여주지 식인 공간과 달리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안에 라이브러리 파크를 포함한 공연, 전시장이 갖추어져 예술적이고, 아늑한 정원과 숲이 있어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미술가들이 오셔서 좋아하고 깜짝 놀라신



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광주에 있다는 것을 광주 시민 분들이 즐기실 수 있길 바라는 취지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첫 번째 콘텐츠는 아시아문화전당 시설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체로 좋은 시설에, 자유롭게 대중적인 콘텐츠까지 완비해, 건물 안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문화예술 전공자들까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가 연간 제공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관광특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당이 21세기를 앞서가는 창의적인 공간이고, 외국의 예술가분들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걸 많이 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김 전당이 옛 전남도청에 자리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입구와 마주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의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고, 앞으로도 광주정신을 담은 프로그램을 녹여낼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 저희 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을 비롯해서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이렇게 5개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전면에서 메인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이 현재는 구도청 복원사업에 따라 완공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ACC는 현재도 건립중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징적인 민주평화교류원이 완공되면 ACC가 외형적으로나 취지에 맞게 건립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민주평화교류원이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이 자리에 전당을 지은 설립의 취지와 걸맞게 광주의 5·18정신을 살리는 콘텐츠들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에도 오월 어머니 노래를 비롯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공연을 18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몇 년째 리바이벌 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작품인데요. 그러한 작품들을 더 자주 선보일 수 있겠죠? 이미 5·18의 정신을 담은 콘텐츠들은 전당 내에서 열리고 있지만, 민주평화교류원이 복원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에 걸맞는 콘텐츠로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마지막으로, 광주시민 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이 우선, 저희 전당의 인터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당은 광주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만한 공간입니다. 그 동안 콘텐츠나 운영 자체가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조직이 완비가 되었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서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간을 많이 찾아와주시고, 이 공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연이나 전시, 시민강좌 프로그램들을 맘껏 즐기셔서, 전당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말미암아 광주를 넘어서 수도권, 아시아 전체로 아주 훌륭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 먼저 애정으로, 많은 방문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직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대와 현장을 기록하는 배우 추말숙

대담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추말숙 연극배우

김혜라(이하 김)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추말숙(이하 추) 저는 1988년부터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추말숙입니다. 놀이패 신명이라는 전문배우 연출극단에서 17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2004년에 분리되어 작품창작이나 연출 위주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극이라는 장르 안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인형극과 그림자극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연극과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자이면서 연기도 하는 배우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커요. 몇 번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최근에는 조재형 감독의 영화 <똥 싸는 소리>에 주인공 엄마 역을 맡아 출연했습니다.

김 저는 이전에 연극을 통해 배우님을 처음 보어서 이 호칭이 익숙한데요. 작품창작이나 연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활동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추 문화예술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직업’인 거죠. 예술 활동을 하려면 물리적인 자본이 절대적이니까 연극수업을 하고 시간 수당을 받는 강사로 일해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놀이패 신명이라는 단체에서 17년 동안 연극 활동을 하다가 보육원 강사로 선정이 됐어요. 보육원에서는 밤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연습을 하는 배우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연극교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서는 걸 포기한 거죠. 돌이켜보면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배우 시작할 때, 나중에 늙어서 분장이 필요 없을 때까지 배우 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단체를 나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무대는 서지 않고 연극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저에게서 또 하나의 재능을 발견했거든요. 일반인들이 혹은 어린 친구들이 연극을 만들고 남들 앞에 서서 공연하는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게끔 개선하는 또 하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연극 교육을 선택하고, 17년 동안 일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었어요. 연령, 직업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왔어서, 지금도 어떤 대상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정확히 50프로씩 배우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역할(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작년 5·18 그림자인형극 <시민군 삼촌 윤상원>에서 ‘자꼬할머니’ 역을 맡아 연기하신 장면이 인상깊었어요. 배우님의 연기에는 어떤 압도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 에너지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추 저는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무대에 들어간다. 그럼 그 수많은 눈들을 내가 이겨야 돼. 그리고 그 눈들이 나를 흡수하게끔 해야 하고, 또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지 않게 해야 돼. 이런 책임감을 늘 가지니까... 놀이패 신명에서 17년 동안 활동하면서 배운 배우로서의 어떤 자세랄까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우리 배우들한테는 대사를 까먹거나 들어가야 될 장면에 못 들어가는 게 가장 공포거든요. 그런 공포감을 없애려면 대사가 자동으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게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공연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무대 뒤에서 계속 대본을 보고 있어요. 저 사실 무대 공포증도 있거든요.

김 전혀 몰랐어요.

추 막상 무대에 서면 초반에는 별별 떨면서 해요. 작년에 연극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 제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너 밖에 안보이더라.” 말하시는



걸 보면 스크린 장벽을 뚫고 나오는 저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 와중에 선천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 그렇다면 문화예술 교육자로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한지요. 무대 위에서의 마음가짐과는 조금 다를까요?

추 학교에서 1년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연극을 지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런 가정을 해요. 저 아이가 평생 처음으로 연극 선생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저 아이가 자라서까지도 연극선생을 만나지 못한다는 가정.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날 연극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는 연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요. 또 한 번은, 어르신 분들 교육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수업시간 전에 마사지를 막 해드렸어요. 다 모이실 때까지 어깨 주물러드리고 발도 마사지해드리고 하니깐 그 중 어느 80세 되셨던 할머니께서 딱 누워서 다리를 꼬고는 “아~ 나 어느 플로리다 해변에 온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어서 또 다른 할머니 분께서 “선생님은 마치 친정



고모 같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집살이가 더 심했을 적에 항상 자기를 챙겨주는 유일한 자기편이라는 뜻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저는 배우다 보니까 연극수업 하는 자체를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관객들을 사로잡아야 할 연극.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랄까. 저는 제가 성심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성의를 다하고, 나의 일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알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만나자고 하고,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김 배우로서의 끝없는 노력, 교육자로서의 성심. 이 두 가지 모두 배우님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어 결국 다르지 않고 하나로 모여지네요. 연기에도 교육에도 모두 책임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추 그런가요? 근데 교육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극은 내가 보여주고, 대상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헤어지고 나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연극교육은 보다 책임감이 커요. 연습하다가 배우 한 명이 빠지면, 그게 지나가는 역할 이어도 그

사람이 없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안돼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에 모 집을 하면 잘 안와요. 어른들도 하고 나면 만족도도 너무 높으시고, 자기 삶을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는 과정이 힘들니까. 특히 연극교육은 미술이나 공예 수업과 달리 혼자서는 절대 안되고,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많아요. 또 공연하면 소품이랑 의상도 몇 번씩 나르고, 세탁도 해야 하고, 손이 많이 간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 모습이나 효과가 크니까 내가 성심을 다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교육이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김 광주 지역 내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광주 시민으로서 특별히 이 지역에 애정이 있으신 걸까요.

추 광주는 싫어할만한 요소가 딱히 없어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8년 동안 만나고 있지만, 광주를 너무 좋아하세요. ‘광주는 다르다’ 이런 말, 저도 좋아하는 말이지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역지사지가 제일 잘되는 동네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공감능력. 말하고 보니 그게 마냥 좋지 않은 않네요. 그래서 항상 광주는 무언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걸 어찌겠어요.

또, 세월호 4주기 추모제 때 제가 총감독을 맡았거든요. 그 뒤로는 조금씩 몫을 맡아 행사에 참여했어요. 특히, 제가 배우 섭외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퍼포먼스 분야를 맡고 있었죠. 올해 세월호 8주기 추모제 행사에도 참여했는데요. 잠깐이지만 행사에 퍼포먼스 부분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탈들을 쓰고 민주광장에서 마당극을 했어요.

마당극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과 영혼(귀신)을 구분 짓기 위해서 탈을 씌워요. 세월호 희생자 분들 역할은 시민배우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김 이렇게 민중예술이 꾸준히 발전되어야 광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앞으로 민중예술이 대중들에게 좀 더 각광을 받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추 광주는 미술기반이 커요. 다른 분야보다 미술 분야를 많이 지원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의 미술가들이 좀 더 광주의 정체성이나 혼을 담아내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술가들의 힘으로 광주를 알린다거나 광주 정신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다들 있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5·18이나 운동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더라도, 그분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작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전시를 보러 가거나 하면, 광주에서 온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어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예술가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예술가 지원을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이왕이면 지역에 유익한 일을 하지 나쁜 일을 하겠어요? 기반 시설 만드는 노력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예술가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지원으로 예술가로서 한 사람이 꺾이지 않고 꾸준히 오래 활동할 수 있게요. 저희도 예술활동을 하는 게 누가 투자해주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이나 사업에 선발이 되면 지원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그래서 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뽀아줄 만한) 작품,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수많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개성을 잃지 않고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연극 분야도 광주 근교에 연극과가 많은데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하고, 광주에 잘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연극분야는 특히 프로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한 사람이 대본을 네다섯 개씩 들고 다녀요. 배우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껌치게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프로들에게 노력에 비해 주목받기 힘들고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연극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렇다보니 차라리 내가 아마추어를 프로처럼 키우자고 마음먹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연기에는 자연스러운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김 문화예술 교육자, 연출배우, 예술인 등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저희는 배우님을 ‘이 시대와 현장을 기록하는 문화인’이라고 보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배우님 스스로는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활동해나가고 싶으신지요.

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기록’인데, 그렇게 표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17년 동안 거의 연극교육만을 하면서 사람들이 연극을 만들고 활동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작년부터 다시 무대에 서면서 느낀 건, ‘그래, 이게 더 내가 할 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인권마당극을 하나 하면 몇 십 명의 관객들이 와서 보고 인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책이나 강연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예술에 교육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특히 연극은 더 그렇거든요. 주제를 더 깊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극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기 때문에 영화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는 현장성과 폭발력이 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분야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더 큰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말고 보기 싫지만 봐야 되는 것, 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배우는 연출과 달리 정면에 드러나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배우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로 하는 교육보다는 제 에너지가 더 없어지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그룹들에 대한 애정이랄까. 작품을 창작할 때에도 대중성 있는 소재를 다루기보다는 굳이 역사, 인권, 희생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배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직시, 인식, 깨달음. 그러다보면 여러 명의 이야기를 내가 다 담아내야 되잖아요. 저에게 304명이 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신 같은, 무당 같은 존재랄까요. 신과 인간 사이의 대리자처럼 연결해주는 역할.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자기가 몰랐던 걸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잘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

광주관광재단&협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COVID-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나라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아걸고 검역과 방역을 강화하는 바람에 모든 하늘길이 막히게 되었다. 4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초강력 규제 속에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유로 인해 2년째 매출 0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여행 업계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매출이 70% 감소했다고 손실보상을 요구하시는 소상공인 글이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었다.

대부분의 여행사는 문을 닫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자기 집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여행사 사장과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택배와 방역 보조, 요양보호사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을 하며 버텨왔다. 그러나 여행을 자제하라고 매일 방송해대던 정부는, 여행업에는 영업을 정지한 적도 없고 영업시간을 제한 한 적도 없다면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 더욱더 심한 좌절에 빠지게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북구청은 21년 2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지친 북구 구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관광업계 지원과 지역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협력 여행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가 북구인 여행 업체를 선정하여 힐링투어를 실시하였다.

21년 9월 2차로 코로나19로 지친 북구 구민의 여행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관광업계 지원과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 약자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협력 여행 업체를 모집하여 다문화 가정 등 관광 약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22년 2월에도 3차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 협력 여행 업체를 모집하여 실시하고 있어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힐링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관광재단은 21년 8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며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가입업체 중 총 150개 내외의 뉴노멀 힐링투어 협력업체를 모집하여 뉴노멀 힐링투어 상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지자체별로도 각 구청의 예산에 맞추어 이와 유사한 힐링투어 상품을 마련하였다. 동구청에서는 21년 10월 코로나19 극복 뷰티관광 힐링투어 협력 여행 업체를 동구에 소재한 여행사 중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재단 및 구청은 광주광역시 관광협회를 통하여 투어를 운영할 관내 여행 업체를 모집하고 광주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객하여 운영하였다.



COVID-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수요 촉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여가 생활의 활력 증진과 대한민국 예술 관광 대표 도시 광주, 브랜드의 지속적인 도약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들로, 비록 1개 업체당 190만 원 이내의 작은 금액이지만 여행업계에는 그나마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투어 일정은 전일빌딩245, 양림 역사 문화마을, 비엔날레, 향토음식 박물관,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호 호수 생태원, 환벽당, 충장사, 풍암정, 중외공원 문화벨트 구역이며, 광주 인근 담양은 죽녹원을 중심으로 관방제림, 소쇄원 주변을 탐방하는 코스가 많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각 여행사별로 운영하였으나 북구 코스가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관광재단 및 해당 지자체는 상품 개발비, 홍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참가비는 5,000원이었다. 힐링투어에 선정된 여행사는 COVID-19 때문에 1회당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코로나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수시로 열을 체크하는 등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올해에 당사는 4월 30일 북구 힐링투어를 하였다. 미국인도 6명이 함께 참가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먼저 10시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만나 북구 관광해설사 신태성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1층과 2층을 관람하였다. 신안해저유물과 신창동 유적

지에서 나온 도지기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점심 식사 후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는 넓은 광주호가 바로 바라보이는 곳에서 강강술래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에 도취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풍암정으로 가면서 울창하게 우거진 단풍나무를 감상하고 풍암정의 맑은 개울물에 얼굴을 비추며 여유로움 속에 자연을 즐길 수 있었다.

미국인과 웃놀이도 하였는데 오늘 일정 중 웃놀이가 가장 좋았다고 하여 한국 전통놀이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힐링투어에 참여한 미국인과 구민들은 한결같이, 같은 북구에 살면서도 미처 와보지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시켜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시켜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운영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비롯한 관광재단, 동구청에 감사드린다. ♪



이정상 (株)유니버스항공 대표

피스모모,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

갈등(葛藤)이라는 말은 등나무와 짚을 일컫는 말로 일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짚은 왼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등나무와 짚이 얽혀있는 모양새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얽힌 복잡하게 꼬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갈등’은 첫째, 견해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 또는 충돌, 둘째, 한 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로 정의됩니다.¹

갈등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 요구, 의견 등으로 인해 촉발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갈등을 생각할 때 조용해 보이는 것 같은 일상에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요소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은 도처에 산재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갈등을 ‘예방 가능한 것’이자 ‘과정’으로 보는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국 사회의

승자독식 문화에서 찾는다면 너무 과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갈등의 보편적 해결 양상들은 대부분 권력을 더 가진 존재에 의해 약자가 제압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자본을 쥐고 있는 기업이 소수 노동자들의 이견을 제압하고, 건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가 훼손되며, 국가폭력에 의해 민주적 저항과 이견이 제압됩니다. 이렇게 통제, 억압, 제압이 갈등해결의 수단이라 여겨지는 현실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미성년’으로 간주되는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의 현장에서 주로 마주치게 되는 장면들은 이해, 위로, 공감, 대화의 순간들이기보다는 통제, 감시, 처벌, 일방적 소통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통제, 감시, 처벌과 같은 일방적인 권력관계 아래서의 소통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갈등의 가능성 및 잠재된 폭력을 억누르고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평화교육자 이안 해리스는 “평화교육은 무력 대결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을 강조한다. 갈등을 논의

1 박수선(2002)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평화 교육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자료집」의 내용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2007)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에서 재인용.



하는 한 가지 방식은 그것을 협력으로부터 경쟁으로, 경쟁으로부터 갈등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협력은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피스모모는 2012년 설립된 평화교육단체로, 평화와 일상, 평화와 배움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피스모모라는 이름은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앞 글자 “모모”를 담고 있고, 시간의 의미를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피스모모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을 통해 ‘서로 배움’을 실천합니다. 서로

배움의 과정은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피스모모는 모든 프로그램을 P.E.A.C.E 페다고지에 기반하여 기획하고 운영하는데요. P는 참여적(Participatory), E는 대화식(Exchange), A는 문화예술적(Artistic-Cultural), C는 비판창조적(Critical-Creative), E는 낯설게하기(Estranging)를 의미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브라질의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강조



했던 ‘대화적 관계’를 경험하는 배움,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낯설게 바라보는 것은 비판적 시민성과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정되고 억압된 몸이 아니라 해방되고 자유로운 몸을 경험하는 것은 각자가 고유한 자신의 생각을 길어내고 표현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피스모모는 매해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만납니다. 짧은 만남들 속에서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소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멈추어 낯설게 바라볼 때, 익숙해져 보이지 않던 폭력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바꾸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래왔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단정보다는 함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하는 경험들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테니까요. 연극, 음악, 미술, 춤,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진 배움의 경험은 인지적 배움으로 국한되기 쉬운 교육

을 온 존재의 경험으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9월이면, 피스모모가 시작된지 10년을 맞습니다. 10년 동안 7만여 분의 참여자들과 함께 평화에 대한 서로배움의 시공간을 만들어왔습니다. 청소년 참여자의 비율은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피스모모를 찾아주시는 청소년분들도 계시고요, 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들의 초대로 청소년분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짧고,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고, 짧은 만남들 속에서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알기에 그 모든 만남들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담긴 글귀 중에 피스모모가 가장 사랑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까.”

‘세상은 안 변해, 원래 그래왔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만남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함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질문하고 응답하며, 서로 배우는 경험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테니까요.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창조신이자 세계를 주재하는 여신

- 마고여신 2

『부도지(符都誌)』는 박제상(363~419?)이 쓴 책이다. 박제상은 신라 5대 파사이사금의 후손으로 ‘영해 박씨의 시조다. 일본에 가서 왕자를 구해 신라로 보낸 후 자신은 그곳에서 죽었고, 아내는 그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비극적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박제상은 15지로 이루어진 『징심록』을 썼는데, 후에 박제상의 아들 백결 선생이 『금척지』를 지어 보태고, 김시습이 『징심록 추기』를 써서 보태어 17편의 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원문은 모두 전하지 않고, 1953년 박금이 기억을 살려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낸 『부도지』만 김은수 선생이 번역한 것이다.

『징심록』은 조선 세조 이전까지는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고려 태조 왕건은 왕사를 보내 부도의 일을 상세히 물었고, 강감찬 장군도 여러 차례 박제상의 후손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영해 박씨 종가와 차가를 성균관 옆에 거주하게 하여 대접하였고, 김시습은 훈민정음 28자를 『징심록』에서 취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신라와 고려, 조선 초기의 왕들은 영해 박씨에 대해 은근히 대우를 한 셈이다.

우리나라에 불교나 유교가 전해져 사상과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오래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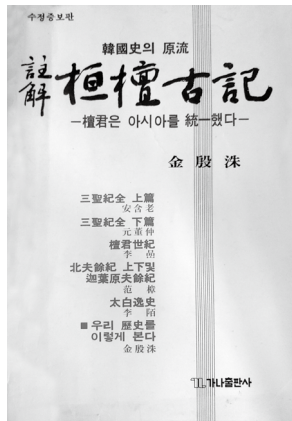


김시습

지속되었을 것이다. 대유학자인 최치원이 ‘풍류도’를 이야기한 것이나, 『징심록』 같은 기록이 전해오는 것도 유불선 이전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의 흔적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도지』나 『한단고기』를 역사서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민족적 우월감의 징표로 보는 모양이나, 나는 그저 아주 좋은 ‘신화의 보고’로 보고 있다. 이 책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학자들이 갑론을박 하면서 밝혀내리라 기대한다.

다시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선천과 후천 사이 짐세에, 소리에서 스스로 태어난 마고는 선천과 후천의 정령으로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 궁희와 소희 역시 정령을 받아 황궁과 청궁, 백소와 흑소를 낳았고, 마고성에서는 그들의 후손이 아



무 걱정 없이 살았다. 마고성에서는 땅에서 젖이 흘러나와 모두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안의 사람들은 지유(地乳)를 마시므로 혈기가 맑았고, 오금(烏金)이 있어 하늘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며, 오고감이 자유스러웠다. 그들은 모두 지상천국에서 하늘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백소족의 지소가 젖을 마시러 유천(乳泉)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샘은 작아 먹을 순서를 다섯 번이나 양보하다 배가 고프고 어지러워 쓰러지고 말았다. 귀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려 보금자리 난간의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를 맛보았는데, 지소는 그 독의 힘 때문에 펄쩍 뛰었다. 아마 술기운도 있었던 모양이다.

지소가 맛이 '참으로 좋다'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드디어 포도를 먹게 되었다. 열매를 먹는 습관이 시작되니 실망한 마고여신이 성문을 닫고 마고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마고성 사람들은 다른 생명을 먹었으므로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흑독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고, 귀에 있던 오금(烏金)이 변해 토사(兔沙)가 되어 버렸으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다섯 가지 맛이 나는 포도를 먹은 것을 '오미의 변'이라 하는데, 결국 '오미의 변'으로 인해 지유가 샘솟는 마고성은 사라지고,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은 네 파로 나뉘어 사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청궁은 무리와 함께 동쪽에 있는 운해주로 가고, 백소는 서쪽 월식주로 가고, 흑소는 무리와 함께 남쪽 성생주로 갔는데, 운해주는 중국 대륙, 월식주는 서방 대륙, 성생주는 인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황궁은 모두의 어른이었으므로 마고 앞에 사죄하고, 오미의 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본을 회복할 것을 서약하였다. 황궁은 무리와 함께 북쪽 천산주로 갔는데, 천산주는 매우 축고 위험한 땅이었으나 황궁 스스로 복본(復本)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선택한 땅이었다. 이 황궁 무리의 후손이 바로 우리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황궁 청궁 백소 흑소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었는데, 백소는 백인들의 시조일 것이고 흑소는 흑인들의 시조일 것이다. 『한단고기』에는 '파내류산 아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는데 합하여 환국이라 하고, 나누어 12개국 있다'고 했는데, 그 12개국 중에 수밀이국(須密爾國)이나 우루국(虞婁國)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수밀이'는 '수메르'와 발음이 비슷하고 '우루'는 수메르에 있던 '우르'와 발음이 비슷하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 여러 고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수메르라고 불렀다. 수메르의 마지막을 주도하던 우르 제3왕국이 서기전 2004년에 멸망함으로써 수메르 제국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진다. 우르에 살던 '아브람'은 이 무렵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기는데,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옮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다.



중국 내몽고 울란 차프에서 출토된 '흑피옥'

『한단고기』에 나오는 환국 12개 국가 중에 '수밀이국'이나 '우루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수메르나 우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메르나 우르가 환국의 영역이라고 하는 추측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윤정모는 이런 신화적 이야기에 힌트를 얻어 『수메르』라는 3권의 장편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귀에는 오금(烏金)이 있어 하늘소리(天音)를 모두 듣고,”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달 속에 있는 모래'가 되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앞 문장은 마고성 사람들이 모두 땅에서 솟아나는 지유를 먹었고 귀에는 귀고리를 하여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아래 문장은 마고성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먹게 되자 귀고리가 엉뚱한 물건으로 변하여 더 이상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금으로 된 귀고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신비한 물건이었고, 귀고리의 신비한 힘이 사라지면 하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것이겠다.

'달 속에 있는 모래' 곧 토사(兔沙)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자 오금이 쓸모없는 물건으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하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늘의 뜻을 듣고자 했을 것이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는 오금을 상징하는 귀고리를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귀고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을 것이다. 귀고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분, 곧 샤먼의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내가 소장한 흑피옥은, 얼굴은 대부분 여러 가지 토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샤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샤먼들의 귀가 예외 없이 매우 크게 만들어져 있다. 귀가 과장되게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듣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리라. 말하자면 하늘 소리를 듣는 능력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은 부처의 귀도 매우 크게 묘사되고 있고, 덕 있는 사람의 귀도 대부분 크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늘과 소통하는 샤먼의 특징이 드러난 것일지 모르겠다. ♪



김상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문

코로나가 가져온 新공동체

2년이 넘게 전 지구를 뒤덮은 암담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씩 물러가는 듯하여 간단히 돌아본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했다.

행사와 공연 등의 활동이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예술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예술가들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개인 작업을 주로 하는 예술가들이나 온라인 등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활동을 하는 분야는 그나마 좀 나았으나 직접 공연을 뛰는 예술가들은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니 수입이 사라진 것이다. 더구나 레슨 등 교육마저 막혀 그야말로 예술가들은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지만 예술인들은 평상시부터 어려운 상황을 견뎌온 만큼 이 충격에 쓰러지는 비율은 덜 한 것 같다.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다른 길들을 조금씩 터 가며 변화발전을 해내고 있다.

서로 대면이 불가능해지고 경계하며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어, 그나마 조금씩 형성해가는 공동체문화가 송두리째 무너질까 크게 우려되었다. 소통

하며 따뜻함을 나누며 힐링하는 문화가 사라질까 걱정되었고 실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위축되어졌다.

하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도 있다.

모든 게 멈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회였는데, 쉬기도 하고 여유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목표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며 바로 옆의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들에 등한시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소통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경험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소통하고 함께하던 규모는 작아졌지만 정말 필요한 소통과 따뜻함은 더 깊어진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게 되었다. 여행사는 문을 닫지만 조용하고 깊어진 여행은 더 늘었다. 공연도 대규모 인원 동원에 매달렸었지만 소수라도 의미 있는 행사나 공연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면이 사라지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부분이 옮겨감으로 인해 인간성과 인간미가 사라질 것을 걱정했지만, 많은 수와 형식적인 만남 대신 소수의 보다 깊고 실질적인 만남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숫자들



음에 덮인 허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소수의 깊은 만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된다.

다양성과 개별성이 존중받는 흐름이 더욱 자리 잡을 것이고 문화예술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하고 또한 섬세하고 깊어질 것이다. 하여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대중 또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예술에 대한 투자도 좀 더 과감해질 것이다. 근 10여 년간 급속히 팽창한 생활예술분야의 장점 외 단점 중 하나였던 전문 문화예술의 위축과 전반적 하향평준화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한다.

촛불 이후 이미 형성되어져 오던 개별성의 자리매김은 정치적으로는 조금씩 가시화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문화적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현대의 공동체 개념은 과거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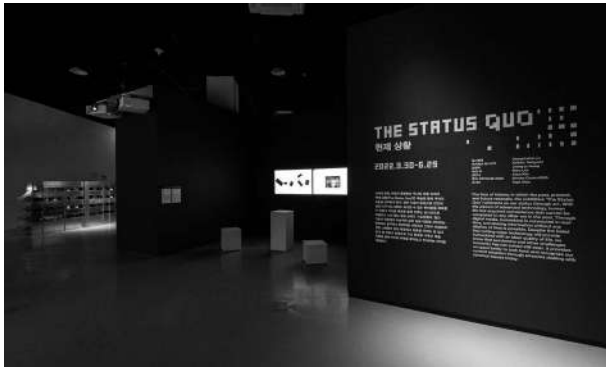
체주의적 이미지가 아닌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며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의 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이를 한걸음 앞당기게 한 것 같다. 코로나는 공동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 계기도 되었다. 공동체와 개별성의 미묘한 결합은 문화예술에서도 더욱 숙성되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상황을 간단히 나열하여 보았다. 초토화되는 듯한 상황에도 빛이 보이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넘어왔던 것이리라. ♪



김태훈 우리문화예술원 이사장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개관과 개관전시 <디지털 공명>



GMAP 제1전시실

미디어아트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지난 3월 30일 개관하였다. 남구 천변좌로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GMAP은 크게 창작과 전시, 교육 및 교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광주시는 2014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래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및 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 미디어아트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등 미디어아트를 통해 예술과 삶의 연결을 주도하는 문화 산

업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해왔다. GMAP 개관은 광주 시 미디어아트의 상징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GMAP이 자리매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GMAP 개관과 함께 시민과 예술가의 창의 역량을 축적하고 창의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광주만의 미디어아트를 체계적으로 육성,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버스와 미디어아트의 창의성을 융합한 예술과 과학, 산업의 선순환 기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MAP은 개관 기념으로 <디지털 공명>전을 제 1,2,4 전시실(2022.3.30.~6.29.)과 제3전시실(2022.3.30.~2023.3.29.)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개관 전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예술의 실험과 방향을 보여주는 해외 작가 14개국 14명, 국내 작가 7명 등 총 21명의 작품 22점이 소개되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미래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로봇, 인터랙티브 아트,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등 몰입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전시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1층 ‘현재



GMAP 제4전시실




GMAP 전경

상황(The Status Quo)’으로부터 출발하여, 2층 ‘퓨처 데이즈(Future Days)’를 지나, 3층 ‘자연과 인간, 기계의 공명(Resonance of Nature, Humans and Machines)’에 이어, 같은 층 제4전시실에서는 오디오-비주얼 공연이 소개되면서 동시대 기술 기반 예술의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다.

1층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명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 공통의 위기 상황과 당면 과제들이 예술작품으로 등장한다. 2층 ‘퓨처 데이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의 경험, 즉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 지점에 있는 작품 및 근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주로 소개한다. 전시 작품들은 새로운 디지털 종과 생태, 로봇, 인공지능, 가상공간 등 기술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3층 ‘자연과 인간, 기계의 공명’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공존을 실험하는 예술가들의 자연-인간-기계-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의 지점을 생각하게 하는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로봇과 기계, 기술 메커니즘을 넘어 알고리즘, 오토마티즘의 데이터 기반 실험이나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의 모호한 경계와 지점에 대한 고찰, 이를 통해 구현되는 디지털 공간을 다시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하는 역발상 등, 디지털과 현실의 새로운 공생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노력의 결과물

들을 만날 수 있다. 3층 제4전시실은 기술과 예술의 협력을 통한 탈장르, 융복합 예술 및 다원 예술 등을 소개하는 실험공간이다. 디지털 아트 및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실험의 장으로서 예술가의 상상력을 실현하게 하며, 향후 GMAP에서 진행될 연구 및 리서치랩을 통해 제작되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에 참여한 한국, 대만, 독일, 멕시코, 미국, 스위스,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중국, 콜롬비아, 퀘벡(캐나다), 태국 등 총 14개국 예술가 21명(팀)은 동시대 예술 안에서 기술과 예술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예술작품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질문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이승아 게스트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가 기술 기반, 특히 디지털 정보를 적극 활용한 예술작품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고 미래의 예술을 상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예술을 통해 인류 공통의 과제으로써 미래에 대한 고민과 메시지를 관람객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제공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안녕하세요. 저는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하 프린지) 예술감독을 맡은 김호준입니다.

프린지는 지역 거리예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펼쳐지는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올해의 프린지는 광주의 상징인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5개구에서 10회 동안 펼쳐지는 ‘우리 동네 프린지’와 5·18 민주광장에서 5회 동안 펼쳐지는 ‘민주광장 프린지’ 두 개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올해 프린지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 프린지 페스티벌로 광장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광장으로 연결과 확대재생산 해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 프린지는 기존 방식인 행사 주최 측이 공연 무대를 펼쳐 놓고 관객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 문화 향유자로서 참여를 바라는 식이 아닌 마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 축제 기획자분들과 주민자치회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더불어 시대정신인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축제로 친환경 퍼포먼스(줍깅 퍼포먼스, 쓰레기 줄이기, 체험부스 간판 제작 등)를 통해 친환경 축제로 자

리매김하려 합니다. 또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손수건 포스터 제작, 모두의 공유 부스 운영 등 환경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또한 프린지는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서 공연예술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올해 프린지의 슬로건은 ‘시민, 예술애(愛) 물들 GO’입니다. 시민이 예술에 빠지고 예술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프린지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기후 위기에 동참하여 시대정신과 함께하는 프린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프린지 키워드로는 정체성, 참여와 연대, 모심과 확대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정체성으로 광주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담아내고 시대정신인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하면서 브랜드를 강화시켜내는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참여와 연대로는 광주공동체(시민성) 회복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시민 자발적 참여로 진행 중인 마을축제 기획단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모심과 확대는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통해 예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프린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외부) 우수공연 초청공연과 공모를 통한 지역 예술인 공연 및 마을 예술인 공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간에 맞는 무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통해 프린지에 선정된 단체는 극, 음악, 전통, 퓨전, 무용 등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체 151개 팀과 전국 우수공연 초청 단체로 우리 동네 프린지와 민주광장 프린지에 배치되어 관객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프린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 하기 위한 내용으로 폐품 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되살림 시민예술 학교, 전시와 체험으로 우리 동네 예술 프로그램을 한껏 뽐낼 수 있는 동네 예술가의 집, 예술로 함께하는 기후 행동인 줍킹 퍼포먼스, 그리고 프린지 주제곡에 모두가 하나 되는 프린지 시민 댄스교실을 10개 지역에 공통으로 배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예술 놀이터와 시민예술체험을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프로그램도 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올해 프린지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참여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참여 프로그램은 프린지 댄스 챌린지로 이 프로그램은 프린지 주제곡을 댄스로 만들어 공유하고 우리 동네 프린지 10개 구역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 10팀이 예선전을 펼치고 유튜브 조회 수와 현장심사를 거쳐 1등을 한 10팀을 모아 민주광장 프린지에서 본선을 거쳐 우수한 성적을 낸 팀들에게 출연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를 통해 우리 동네 프린지 10곳을 다 참여하신 시민분들에게 민주광장 프린지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코로나 시기로 움츠러든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격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예술로 치유되는 축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김호준 2022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예술감독

역사와 문화가 담긴 숲을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늘 숲을 그리워한다. 정보가 넘쳐나고 메타버스나 AI가 우리 곁에 왔어도 초록빛이 충만한 숲에 가기를 원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숲을 향한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는데, ‘바이오필리아(녹색 갈증)’이라고 한다.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bio)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philia)의 합성어이다. 사람의 마음과 유전자 속에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숲이 태어나고 변화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0만 년 전에 사바나 숲에서 출현하였다. 숲이 생긴 지 4억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이 숲과 만나게 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독특한 생활 환경을 개척해 가면서 문화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숲과 문화

숲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였다. 육체적 활동으로 인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숲으로부터 해결했다.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은 철학자들의 사색의 터이고 예술가들의 창작을 위한 상상의 장소였으며 문학의 장소가 되었다. 모든 학문과 예술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숲은 인류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다. 농경사회를 거치는 동안 숲은 많은 변모를 겪었고 숲

은 다양한 기능으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인류의 삶의 흔적이 모인 문화의 출발은 숲에서 시작한 것이며 숲과 문화가 연결된 고리는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숲은 문화의 형성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다.

세월의 흔적을 담은 나무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현재까지 박물관의 많은 유물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다. 다양한 유물과 문화재의 모양이나 문양 등은 대부분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무생물들을 새기거나 빚어내고 그림 등으로 나타냈다. 아주 오래전 석기시대 사람들과 함께 있던 나무,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초기 철기시대 나무로 만든 ‘슬’이라는 현악기, 농사터에서 발견된 벼씨, 호두씨, 살구씨앗들은 타임캡슐을 묻은 듯 환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미래의 숲이기도 하다. 옛 왕들의 관재로 쓰였던 귀한 나무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나무에 새겨진 우리 역사를 더듬어 세월의 흔적을 담은 나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숲을 이야기 하는 사람

박물관 정원 숲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

는 ‘박물관’을 품어 안고 있다. 박물관 정원 숲 이야기는 역사 속의 숲과 나무가 주는 문화적 정서와 감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사와 함께 숨 쉬며 자연과 더불어 숲 문화 안에 담긴 우리 문화의 모습, 우리 생활과 연관을 맺고 있는 숲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나무들의 지니고 있는 가지가지 사연과 잃어버린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 민족의 삶의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나무가 함께 했다. 그래서 선조들과 삶을 같이 했던 옛 나무의 사연이 담긴 나무를, 숲을 이야기한다. 지나온 세월을 말하듯 갈라지거나 거칠한 피부를 직접 만져보고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사연을 들어본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잠시나마 나무가 가진 역사와 문화, 지나온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과 숲의 흔적을 전해준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숲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탐색을 자유롭게 담아내며 화려하지도 복잡하지도 않게 아주 단순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연예술가들이 된다. 아이들은 자연 공부보다는 자연에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자연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 마음도 저마다 다르니 자연도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아메리카 원주민 후손인 어느 식물생태학자가 “맨 처음 찾은 식물은 절대 캐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식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숲은 숲으로 존재할 때만 우리에게 아낌없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숲을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가꾸어갈 이유는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산림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산림문화연구소

2014년에 설립된 산림문화연구소는 수준 높은 산림교육,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산림복지 전문 업체로 산림문화연구소는 호남지역 특유의 문화와 산림을 접목시켜 새로운 산림문화를 확산시키

고자 숲을 이야기하는 사람 26명이 모여 숲 연구 사업, 숲 환경교육과 숲 치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산림치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의 숲 문화까지 내다보는 ‘산림문화연구소’이다.

산림문화연구소 정숙희(천리향) 대표는 말한다. “우리에게 항상 숲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어요. 산림문화연구소는 숲을 터전으로 산림교육과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산림문화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숲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산림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산림문화 연구 사업은 산림, 문화, 예술 자원 콘텐츠를 개발해 컨설팅하고 연구소 이름에 맞게 산림교육과 치유 효과를 분석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 교육 사업은 유아부터 청소년, 일반 성인까지 숲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성 발달과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에서 생성된 문화적 가치가 ‘산림문화자산’이며 우리와 함께 해온 나무와 숲에서 생성된 문화적 가치로 문화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숲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행복한 산림문화에 힘쓰고자 한다. 산림문화연구소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숲의 가교제이며 자연의 삶과 인간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숲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싶다. ♪



정숙희 산림문화연구소 대표

지금은 리뷰시대

- 블로그로 본 세상

지금은 리뷰시대 - 요즘의 블로그

블로그(blog)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 일기, 취재 기사 따위를 올리는 웹 사이트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 정의에 맞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주변에 블로그를 한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블로그를 다이어리처럼 활용하며 사진과 글을 넣어서 일기를 쓰고 친구들과 서로의 블로그에 찾아가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며 '일상'이라는 카테고리 위주로 블로그를 활용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점심을 먹을 곳은 맛집인지', '카페에는 어떤 메뉴가 있고 맛은 있는지', '여행하기 좋은 곳은 어디인지', '물건을 사고 싶은데 괜찮은지' 등 모든 '리뷰'에 관한 것들을 찾아볼 때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 후 제일 먼저 블로그를 클릭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페이지에 뜬 블로거의 리뷰를 클릭해 보며 괜찮다고 하면 방문하거나, 구매를 하는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험도 많고...) 이렇게 지금은 '일상'이라는 1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나 '상품', '여행', '맛집' 등 여러 가지의 리뷰에 관한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나 또한 블로그나 SNS 검색을 통해 먼저 찾아보고 참고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블로그를 꾸준히 운

영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메뉴판과 음식을 찍고 리뷰를 하는 식의 글을 매일매일 작성했는데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체험단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오는 식당 체험단 및 제품 협찬을 받으면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로그 체험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제품 협찬이나 음식점 리뷰를 요청하는 회사나 가게들은 모두 마케팅을 위해서 블로거를 모집하곤 하는데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블로그 체험단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사이트에 마케팅비를 지불하고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나 같은 블로거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 가능한 제품이나 지역의 맛집, 숙박 등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신청한 후 선정이 되면 선정된 맛집을 가거나 제품을 배송받아 사용하고 블로그에 리뷰를 올린다.

(대표적인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 레뷰, 링블, 모블, 스토리앤미디어, 포블로그, 강남맛집 체험단, 구구다스)

두 번째 방법은, 회사(가게)가 개인에게 소개비를 주어 쪽지나 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집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 소개비를 받은 개인이 블로거에게 메일과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구글폼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신청 및 선정을 한 후 협찬을 해주는데 협찬을 받은 블로거들은 체험 후 글을 작성한 블로그 링크를 소개비를 받은 개인에게 보내게 된다.

마지막 방법은, 광주 블로그 체험단을 뽑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사장(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모집을 하는 것이다. 사장(직원)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공고를 띄워서 제품이나 식당 체험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블로거들은 그중에서 괜찮은 공고를 골라서 카카오톡에 이름과 블로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남긴 후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하고 블로그 링크를 보내게 된다. 이 방법은 회사(가게) 측에서 직접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다.

리뷰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협찬을 통해 리뷰를 맡길 때는 항상 '키워드'라는 것을 준다.(협찬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자신이 키워드를 생각해서 적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광주의 식당에서 나에게 밥을 먹고 리뷰를 남겨달라고 하면 "키워드는 광주맛집, 광주 데이트, 충장로 맛집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잡아주세요~"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중에 하나를 골라 블로그의 제목과 본문에 넣어서 글을 작성한다. 이때 선택한 키워드는 5번 정도 언급하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검색을 했을 때 상위 페이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대신 키워드를 너무 많이 적으면 네이버에서 홍보성 글로 인식해서 페이지에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키워드의 경우는 상위 페이지로 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글자 수를 2,000자 채워서 작성을 해야 확률이 높아진다. 실

제로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에 '글자 수 1,000자 이상'이나 '2,000자 이상 작성 필수'라는 말이 자주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청했던 글자 수가 넘지 않으면 수정해달라는 메일도 오는 편이라서 항상 작성 후에 글자수 세기를 돌려본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과 움짤을 넣으면 상위권에 잘 올라간다. 거기에 지도까지 같이 넣어주면 금상첨화다.

서포터즈, 기자단,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블로그

사실 요즘은 SNS 플랫폼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마케팅 방식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마케팅 플랫폼은 바로 블로그가 아닐까 싶다.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도 변화하고 있는데 블로거를 뽑아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방문 체험을 하게 한 후 글을 올리면 원고료를 주는 서포터즈가 생겨났고, 사진과 가이드라인을 파일로 받고 그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원고료를 주는 기자단도 생겨났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NFT나 코인 등도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리뷰 시대에 맞게 블로그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



양수영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드림어

큰 소리로 떠들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오는 말이 적당해야 가는 말도 적당하다. 니가 큰 소리로 떠들면 나도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치. 모두 다 큰 소리로 떠들면 어찌겠다는 것인지. ♪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1차 자문위원회 개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사업팀 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29일(금)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만식 위원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바로 이어, 주홍 총감독의 사업 소개가 진행되었다. 개최 일정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 우천시 대비한 플랜 B 준비, 야외 행사이므로 완벽한 장비 시스템 지원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2022년 2차 연구소 기획위원회 및 호남여행기 단행본 편찬 1차 자문위원회 개최



재단 연구소 2차 기획위 및 호남여행기 단행본 편찬 사업 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일(화)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정성일(광주여대 교수) 책임 연구위원의 사업 소개에 이어 자문위원 의견 제안으로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9월 말까지 호남여행기 단행본 초안 마련 및 자문위원 회람/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에 열리는 학술심포지움에서 연구 결과 공유/도

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한편, 호남한국학 강좌 건은 사업이 선정되면 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기획위와 사무처가 소통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직

2022년 제2차 후원이사회의 개최



2022년 2차 후원이사회가 지난 5월 25일(수)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형근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어 △ 재단 임·회원 나들이 건 △ 2022 지역문화교류마당 개최 건 △ 회원모임 활성화 제안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 결과, 7월 9일(토) 영광 임·회원 나들이를 겸한 전체임원 워크숍의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5월중으로 구급품을 활용해 참석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문화교류마당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영광 나들이에서 제안 후 의견 수렴 및 계획·추진키로 하였다.

2022년 제4차 정기임원회의의 개최



2022년 4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5월 11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ACC-시민사회 소통 채널 및 (가)아문도시조성사업 협치 조직이 구성, 운영되면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단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

키로 하였다. 또한 민선 8기 문화정책 수립 과정의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 역할을 맡고 있는 문도협과 연계하여 민선 8기 인수위에 정책 제안 및 7월 중 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아울러 6~7월 개최되는 재단 주요 사업은 각 사업의 특성에 부합되게 운영위와 후원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실행토록 위임하고, 사무처가 행정/대의 협력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2022년 제 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2년 2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월)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양균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 사업 추진 과정의 대외적 위상 제고 못지 않게 임회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오는 6월에 개최되는 2022 세지광, 11기 역사문화시민대학부터 동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8기 문화행정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향후 구성되는 민선 8기 인수위와의 간담회, 문도협과 연계한 포럼을 통해서 운영위 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사무처가 역할을 수행키로 하였다. 또한 작년에 지역 문화계와 연대한 광주시립문화예술회관장 개방형 직위 재지정 활동은 당분간 관망하되, 민선 8기가 출범하면 지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키로 하였다.

•연대

망월동 국립 5·18묘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합동참배



5·18민중항쟁기념행사를 이틀 앞둔 16일(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합동 참배를 진행하였다. 광주시민단체 활동가 29명은 16일 오전 5·18 국립묘지에 모여 5월 정신을 기억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5월 항쟁의 가치를 되새겼다.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광주 정치 발전 외면한 민주당 광주시당 규탄 기자회견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한다는 합의안에 사인했다. 이에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4월 20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은 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정치적 결단 요구에 화답하고,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면담 요구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및 비위 관련자, 징계자들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일당정치 독점 해소! 진보정당 지지 기자회견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사전투표일을 앞둔 5월 25일(수)

재단·회원소식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정치 제도 존치로 광역의회에서 50%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난 상황을 방지해 온 민주당을 규탄 했다. 또한 광주가 정의·민주도시를 자임할 수 있으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 비례·광역·기초에서 진보정당(녹색·정의·진보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함을 광주시민에게 호소했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신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안태기 전운영위원장(광주대 교수), 사단법인 한국이벤트 협회 광주·전남 지회 제7대 회장 취임!



2022년 4월 12일(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 협회 광주·전남지회 7대 회장으로 안태기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로 선출 하였다. 안태기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벤트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권익보호와 위기 극복에 최우선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이벤트 산업 발전법」을 제정 지원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30만 이벤트종사자들의 단합이 필요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한 “광주·전남의 관광산업 관련 지역 스토리 발굴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및 청년 지역 정착,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답뉴스> 발취

박요주 이사(세무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취임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신임 박요주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요주 이사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인데도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광주에만 국한돼 있는 기념사업을 전국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와 연구기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뉴스스> 발취

한희원 회원(화백), ‘이방인의 소묘 그리고 詩(시)’ 초대전시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은하수 갤러리’에서 한희원 작가의 그림 속에 담긴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이방인의 소묘 그리고 詩(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들 중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일 년 여간 머물며 일기처럼 그리고 쓴 시와 그림을 선보인다. “시인의 가슴을 열어보면 타다 남은 검은 재밖에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이 그 검은 재를 한 움큼 쥐어 가슴에 담으면 바람으로 별과 꽃으로 피어난다”라는 한희원 작가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대중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 <아시아경제> 발취

김상윤 고문(윤상원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최영태 회원(전 남대 명예교수)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사 학술채록집 발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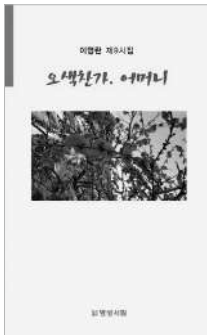


전남대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많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구속, 제적, 부상, 사망 등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미진한데다, 전남대학교의 민주화 운동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한 결과 1단계 성과물인 채록집을 오는 6월 발간하기로 했다. 학술채록집에는

군사 권위주의 시기부터 80년 5월, 80년대에 이어 1998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건마다 함께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두 30명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겼다. 구술자 중에는 김상윤(국문, 68), 최영태(사학과 명예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 <위키트리> 발췌

이명란 후원이사(시인) 제9시집 『오색찬가·어머니』 출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란 시인이 제9시집 『오색찬가·어머니』를 출간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어머니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는 이명란 시인은 1998년 『문학2』로 등단하여 시인, 화가, 문학전문강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함께해 주세요!

World Intellect Expresses Gwangju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무등의 빛으로 스며들다

2022년 6월 11일(토) pm 6시30분-12일(일) am 1시

광주광역시 이야기 안두, 김오, 김봉 광주 100년 이야기 광주 100년 이야기 100 광주 100년 이야기 100	대통령의 글 부유광명 광주 100년 이야기 광주 100년 이야기 100 Love & Peace pm 6:30-9:00 www.gwangju.or.kr	오월광산 클래식아라모 무용회 안 두 5시30분 pm 6:30-9:00 www.gwangju.or.kr	민주시민배프 DJ 쇼 최영태 1980 광주 100년 www.gwangju.or.kr
---	--	--	--

주최: 지역문화교류포럼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42주년 5·16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0주년

제17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광주와 마한, 남도문화의 원형을 찾아서

2022. 6. 16 ~ 6. 30 매수 화·목 오후3시
동구 미로센터 2층 및 광주·나주 일원

구분	일시	강사	강의 주제
1강	6.16(화) 15:00	일영 전 홍남문화재단구분 이사장	영산강 유적 이항의 이해
2강	6.21(화) 15:00	이정호 동산대학교 교수	백담의 고분이 불러주는 마한과 고대문화
3강	6.23(목) 15:00	이범기 전남문화재단유무소장	영산강유적 전방후원형 고분 의
4강	6.28(목) 15:00	조현종 삼국통일시대문화의 강연	신라통 유적과 광주의 기원
총회 및 평가	6.30(목) 09:00	노영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신라통, 불개통 및 나주 일원

▶ 모 집 : 선착순 40명
▶ 참가비 : 2만원(회원 1만원 ※ 단서비 포함, 추가비용 없음)
▶ 계 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제지역문화교류포럼재단)
▶ 신청 및 문의 : 062-234-2727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황병하 조선대 명예교수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협의회 정책팀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원문화관광연구실장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손용만 광주관광협회 사무국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양수영 청년드리머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주)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4월을 지나 5월, 6월을 보냅니다. 천변만화, 자연을 아름답기만 한 계절인데 우울한 긴 터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왜 그리도 많은 생명이 후두둑 젖고, 빗방울 가득한 계절인지, 이 즈음은 대체로 슬픔입니다. 봄을 관통하는 길목마다 문턱 제대로 넘을 수 없게끔 아픔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네 사월, 오월, 유월에 스러져간 순결한 님들을 생각하며’ 보내온 정희승 작가의 동백꽃 표지화가 가슴을 때립니다. 절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작가의 마음이 또 고맙습니다.

한 시즌을 보내고 새 철을 맞는 곳이 더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죠. 민선 7기 시대를 마감하고 8기 새 주인을 맞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이 그대로 들어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여러 곳은 친장이 바뀝니다. 광주광역시도 친이 달라집니다. 새 수장을 맞게 될 문화도시 광주의 변화를 기대하는 옥고들을 모았습니다. 도시의 경쟁력, 예술가들의 꿈과 창작터로서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지는 글들이 신선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부디 새 지방정부의 변화와 분발, 혁신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호도 알찬 기사들이 많습니다. 개관 6년만에 임명된 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시대와 현장을 기록하는 배우 추말숙 인터뷰도 읽을 만하고요.

좋은 글들을 보내주신 여러 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편집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선선히지면 찾아뵙겠습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7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폴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공동 아시아유럽미래학회 학술 문화융복합학회 대회 국제문화연구원

주제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시대 담론

- 섹션 1 정치 · 경제 · 외교
- 섹션 2 문화 · 예술 · 공간
- 섹션 3 지역 · 환경 · 도시

장소 컬처호텔 램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3)

일정

시간		프로그램
6/10 (금)	17:00	기조발제
	18:00	만찬
6/11 (토)	10:00	문화탐방
	14:00	학술발표
	18:00	폐회식

문의 (사) 아시아유럽미래학회사무처
 김도형 010-3932-3169

주최 사)문화융복합학회 ·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조선대 국제문화원

주관 사)문화융복합학회

후원 GJTO 광주관광재단 · CULTURE HOTEL LAMM 컬처호텔 램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 의무화

- 2022년 7월1일 부터 미등록 가맹점 광주상생카드 결제 불가 -

신청기한 2022년 6월 30일 까지

신청대상 현재 광주상생카드 결제가능 사업자

신청방법 1) 가맹점등록 간편문자 URL 또는 QR 접속하여 등록
(https://m.kjbank.com/mbdt/info/shrt/winwin_kj.do)
2)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내 등록신청
3)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내 등록신청

유의사항 가맹등록제한업종은 신청하더라도 등록이 제한되며 등록결과는
적격심사 후 개별통지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문 의 처 광주은행 고객센터 1577-3650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 613-3721~4



광주상생카드
가맹점 등록신청

